

현안과제연구

황해경제자유구역(YES FEZ) 물류기본계획(안)

연구수행 : 신동호

CDI 충남발전연구원

황해경제자유구역(YES FEZ) 물류기본계획(안)

1.기본구상

환 황해권 부가가치 물류거점 조성

- 동북아 부가가치 물류의 지역항만 육성
-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 클러스터(cluster) 구축



[그림 1] YES FEZ 물류기본계획의 비전체계

1) 비전

■ 「환황해권 부가가치 물류거점 조성」

- 對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(value added logistics) 육성

2) 목 표

■ 동북아 부가가치 물류중심의 지역 중추항만 육성

- 수입중국부품과 국내첨단부품을 결합·조립·가공하여 對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배후물류단지와 연계한 항만기능 강화

■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클러스터 구축

- 항만물류, 항만배후단지, 배후산업단지가 상호연계된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물동량 창출경쟁력을 제고

3) 추진전략 및 과제

■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

- 물류거점시설 통합개발 및 활성화 추진
- 산업 및 물류거점간 연계기능 강화
- 대량화물 수송체계 활성화 및 친환경 물류체계의 구축
- 물류거점의 연계수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하역시설 및 장비 선진화

■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

- 국가물류체계 효율화 촉진 및 산업물류 연계강화를 위한 물류정보화 및 네트워크화 추진
-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첨단물류 기술의 개발 및 보급
-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화를 주도할 전문물류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

■ 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조성

- YES FEZ 지구별 개발계획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즈모델 개발·적용
- 글로벌 물류부가가치 획득을 위한 국내물류기업의 국제화 지원
- 비즈모델과 연계한 YES FEZ 지구별 물류시설 확충

■ 효율적 물류지원체계 구축

- 물류업체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협의회 구성
- 물류 관련기관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
- 비즈모델과 연계한 투자마케팅 전략 수립

<표 1> YES FEZ 부가가치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

추진전략	과제
·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	· 물류거점시설 조성 및 대량화물 수송체계 활성화 · 하역시설 및 장비선진화,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
·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	· 물류정보화 및 네트워크화, 첨단물류기술 개발·보급 · 전문 물류인력 육성
· 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조성	· 지구별 비즈모델 개발·적용 및 필요 물류시설 확충 · 국내물류기업의 국제화 지원
· 효율적 물류지원체계 구축	· 물류업체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협의회 구성 ·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및 투자마케팅 전략수립

2.YES FEZ 물류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

1)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

(1) 기본방향

-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입지기능 연계추진을 위한 광역·지역 교통망 확충
 - 광역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을 통한 내륙수송체계 구축
 - 항만운영 및 시설확충을 통한 해상·내륙 복합수송체계 구축
 - 경제자유구역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교통네트워크 구축
 - 대중교통체계 확충으로 교통수단별 수송기능 제고
 - 소통 애로구간의 교통개선을 통한 접근성 및 이동성 증진
- 항만이용자에게 산업·경제적 활동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
 - 항만-항만배후단지-배후지간 공간적 구조와 상호활동의 기능을 공간적·기능적으로 통합
 - 항만의 물류기능 향상 및 수출입 + 부가가치 물류기능의 지원센터 역할수행
 - 세계 항만간 국제간선 물류 및 국내외 인접항만간 피더 물류 네트워크 강화
- 장래 물동량 증가 및 물류환경변화에 대비한 당진·평택항의 점진적 개발
 - YES FEZ 및 중부권 발생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장래 화물증가에 대비한 단계별 항만개발
 - 선박의 대형화 및 전용화 추세에 대비한 대규모 전용부두 개발
 - 배후 도시기능과의 조화 및 원활한 배후 수송시설 확보

(2) 추진계획

① 교통시설 설치계획

■ 주요 기존계획

-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교통시설 설치계획
 - 당진·평택항(당진군)의 경우 당진~대전간 고속도로, 당진~천안간 고속도로, 국지도 70호선 확장
 - 당진·평택항(평택시)의 경우 수원~평택간 고속도로, 국도대체우회 도로(장안~발안간), 국지도 82호선 확장 예정

■ 중장기 계획

구 분	사 업 명	구 간	연장(km)	비 고
고속 국도	당진~울진간 고속도로 신설	당진~천안~ 영주~울진	269.0	국가기간교통망 계획(2000~2019년)
철도	동서산업선(단선)	천안~안흥	98.4	국가기간교통망 계획(2000~2019년)
	장항선 복선전철화	온양~군산	126.6	국가기간교통망 계획(2000~2019년)
	평택~포승간 건설	포승~안중~평택	27.0	비전 평택항 종합개발계획
연결도로 (연육교)	신평면~내항간 연육교 건설	신평면 매산리~ 내항 서부두간	4.2	당진군 도시기본계획(2011~2016년) (2007년 타당성조사 실시)

② 당진·평택항 시설 개발계획

■ 기존계획

- 당진·평택항은 현재 컨테이너 4선석, 자동차 3선석 등 25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까지 53선석 2015년까지 60선석, 2020년까지 74선석을 개발·운영 예정

■ 당진·평택항 시설 개발계획

<표 2> 당진·평택항 시설 개발계획

구분	계	2009	2011	2015	2020
합계	74	25	28(53)	7(60)	14(74)
컨테이너	29	4	5(9)	6(15)	14(29)
자동차	5	3	1(4)	1(5)	—
철재(원료)	19	11	8(19)	—	—
일반(기타)	21	7	14	14(21)	—

주 : 국제여객부두, 돌핀부두 제외

자료 : 자료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내부자료

③ 항만 배후단지 조성계획

■ 항만 배후단지 지정·개발방향

-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, 항만과 연계효과 극대화 가능지역 선정
- 중복투자 방지 및 차별화된 배후단지 개발

■ 추진계획

- 유사단지(ICD, 유통·산업단지)와 차별화된 기능을 확보하되, 도시·항만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종합물류기능 확보
 - 국토·항만계획과 연계성 확보로 국가·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
 - 개별 항만여건에 부합하는 복합물류 기능을 확보하여 국내외 물류구심점 역할 수행
 -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물류기지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의 직접화(Port Cluster)를 통한 산업간 상승효과 극대화

- 효과적인 개발 및 관리·운영 체계 확보하여 여건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배후단지의 지정·개발
 - 단지유형,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후단지 개발·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한 체계적인 배후단지 개발
-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“복합물류시설 기능, 물류서비스 지원시설 기능, 공공시설 기능” 등 3가지로 분류, 다양한 인프라 형성
 - 복합물류시설 기능은 보관배송시설, 조립가공시설, 환적장치시설, 공 컨테이너 장치시설 등 도입
 - 보관배송시설 : CFS, 창고단지, 도매단지, 공동배송센터, 유통센터, 국제물류센터 등
 - 조립가공시설 : 자동차부품/섬유/신발 등 가공조립센터, 재분류 및 포장단지 등
 - 물류서비스 지원시설 기능은 배후단지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위한 직접지원시설 및 상업시설, 연구·벤처시설 등 도입
 - 직접지원시설 : 주유소, 세차시설, 주차장, 사시장치장, 정비고, 화물차휴게소 등
 - 상업시설 : 공공·일반·국제업무시설, 금융, 숙박, 판매·전시 시설 등
 - 연구·벤처시설 : 연구시설, 정보시설
 - 공공시설 기능은 항만친수시설, 완충녹지 공간도입과 배후단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 및 철도시설 등 도입

■ 당진·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

<표 3> 당진·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

구 분	계	1단계	2단계	3단계
구성면적	2,627천㎡	1,429천㎡	1,198천㎡	1,851천㎡
총사업비	4,521억원	4,512억원	2,202억원	
사업기간	2006~2015	2006~2010	2012~2015	2020

자료 :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내부자료.

④ 교통처리계획

■ 기본방향 및 교통처리계획

기본방향	개선방향	교통처리계획	
·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	· 당진·평택항, 포승지구와 공로부분 광역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하여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확충	송악지구	·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(가곡~석문)로 송악IC를 이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연계축 형성
		인주지구	· 인주지구~서산IC 구간의 국도32호선 및 34호선 확장으로 당진IC를 이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연계축 형성
		지곡지구	· 지곡지구~국도32호선 연결도로 개설로 서산IC를 이용한 서해안고속도로 연계축 형성
		포승지구	· 포승지구~국도38호선 연결도로 확장으로 교포IC를 이용한 서수원-오산-평택간 고속도로 연계축 기능 향상 · 국도39호선 확장으로 포승지구 및 충남권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처리
·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	·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송악구, 지곡지구, 인주지구를 연계하는 순환형 연계촉진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충	송악지구	· 기존 국도38호선을 연장 개설하여 송악지구와 연계하는 왕복6차로 지역교통망 형성
		송악지구 ~ 인주지구	· 기존 국도38호선과 국도34호선의 확장으로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를 연계하는 왕복4~6차로 지역교통망 형성
		인주지구 ~ 지곡지구	· 기존 국도32호선 및 34호선 4차로 도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여 인주지구와 지곡지구를 연계하는 왕복6차로 지역교통망 형성
		지곡지구 ~ 송악지구	· 기존 국도29호선을 활용하여 지곡지구와 송악지구를 연계하는 왕복 4차로 지역교통망 형성
	· 경기권 경제자유구역인 포승지구, 향남지구와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	포승지구	· 지구간 연결도로 및 기존 국도38호선을 활용하여 지구 유발 교통수요 연계성 강화
		향남지구~향남1택지지구	· 국지도82호선 확장 구간의 추가 유발 수요처리를 위한 가로망 추가 확장 · 지방도315호선의 확장으로 병목구간 해소
· 물류비용 및 혼잡비용 감소를 위한 교통 정체구간의 최소화	·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교통망 및 지역교통망의 원활한 연계촉진 방안으로서 교차지점의 정체구간을 완화할 수 있는 입체화 계획 수립	· 지곡지구~국도32호선 연결도로 신설구간의 기종점으로서 기존 국도29호선 및 국도32호선과 교차하는 지점의 입체화 계획 수립	
		· 지방도615호선과 국도 확장계획의 교차지점으로서 북측 국도38호선 및 남측 국도 32호선 교차지점 입체화 계획 수립	
		· 포승지구 국도38호선 확장 구간의 교차지점 입체화 계획 수립	

■ 도로망 확충 개선대책

-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(가곡~석문)
 - 국도38호선은 송악지구의 주 진출입로이며, 가곡~석문간 도로(4~6차로)를 개설하여 광역도로(서해안고속도로, 대전~당진간 고속도로)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지구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접근성 향상
 - 국도38호선 연결도로(가곡~석문간) 개설로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별 연계체계를 위한 순환노선망 구축
- 지곡지구~국도3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(지곡~운산)
 - 지곡지구와 국도32호선을 연결하여 서산IC에서 광역도로(서해안고속도로, 대전~당진간 고속도로)와의 연계가 가능하며, 지곡지구에서 유방되는 발생교통량 처리의 주도로 역할 담당
- 국도32호선(서산IC~거산리) 및 34호선 확장(거산리~인주지구)
 - 국도32호선(서산IC~거산리) 및 34호선(거산리~인주지구)을 6차로로 확장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처리를 하였으며,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별 원활한 연계체계를 위한 순환노선망 구축
 -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유방되는 발생교통량으로 인하여 국도34호선의 교통소통이 악화되는 정체구간 해소
 - 국도38호선(포승지구~서수원-오산-평택간 고속도로(교포IC)) 확장
 - 국도32호선 (서산IC~거산리) 및 34호선(거산리~인주지구)을 6차로로 확장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위한 순환노선망 구축
- 국도39호선(포승지구~안중) 확장
 - 평택청북지구의 국도39호선 확장 계획을 포승지구까지 연장하여 포승지구의 유방교통량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유방교통량에 능동적 대처
 - 국지도82호선(향남지구~향남IC) 추가 확장(4→6차로)
 -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개발계획으로 유발되는 발생교통량으로 인해 국지도82호선의 교통소통이 악화되는 정체구간 해소

- 지방도315호선(향남지구~지방도310) 확장
 - 향남지구의 수도권 북부 통행량으로 인한 예상 병목구간 해소

2)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

(1) 기본방향

■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

- 물류공동화, 표준화,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물류환경 개선 등 선진물류시스템 도입
- 소량 다품종, 직거래의 확대 등 교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
- 단순 물류보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토탈 위탁관리 제공

(2) 추진계획

① 입주기업 물류지원센터 운영

■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게 된 기업들은 국내에 판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리, 반품, 재포장 등을 위한 시설과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기에는 큰 애로사항이 따르게 됨
- 입주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지하게 되나 상품의 판매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임
- 따라서 수리, 반품, 재포장 등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를 목적으로 한 기본적인 국내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며, 차후 국내 서비스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
-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통합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은 대륙권 진출을 위한 관문 및 영업 기지로 적합함

■ 추진방안

- 수요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분야를 선정하고, 제공하고자 서비스의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
 - 일례로, 국내 중소기업공동A/S 센터는 웰빙가전, 일반가전, PC군, 멀티미디어군, 차량용 A/V 군등의 제품군으로 선정해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A/S 서비스를 제공
- 통합서비스는 우선적으로는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체계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리, 반품, 재포장, 콜센터 업무등을 담당
 - 통합서비스의 제공은 입주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 절감의 효과로 나타나 매출이 증대되며, 이는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
 - 입주한 기업의 아웃소싱 의뢰는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일정조건 하에서의 특정서비스 제공 등의 협의 등도 가능
 - 입주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경제자유구역이 보장하는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 가능
- 아웃소싱은 정당한 절차 아래 분야별 제휴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, 선정된 서비스 분야별로 개별기업들이 선별되지만, 서비스 시스템은 개별기업들이 결합되어 운영
- 통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리, 반품, 재포장, 고객지원 콜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, 조립 및 재조립, 폐품 회수 및 재활용, 창고 및 부품관리, 배송 및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까지를 확대하여 고려
 - 통합서비스의 범위에서 배송 및 창고 등의 물류관련 서비스 역시 필수적

② 공동물류 지원시스템 구축

■ 추진배경 및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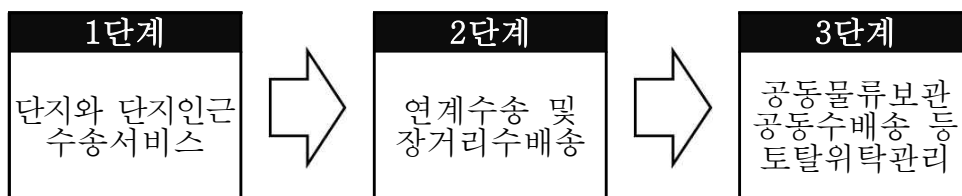
- 물류의 복잡화, 정보의 비대칭성, 개별운송 등으로 물류비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외투기업의 경쟁력이 감소

- 특히 소량이며 다빈도 화물의 경우 물류의 비효율성이 큼

■ 추진방안

- 공동수배송 시스템구축
 - 최적의 물류노선 개발 등 효율적인 물류운영으로 비용최소화
 - 지역별, 날짜별로 다수업체의 제품을 공동으로 배송하여 효율극대화
- 공동물류보관 시스템구축
 -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입고, 재고, 출고관리 제공
- 해외의 경우 KOTRA와 연계하여 공동물류지원
 - 해외물류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보세창고 운영, 통관 및 운송,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초기 투입비용 절약
 -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출촉진 방안 마련

<표 4> 공동물류서비스 확대 계획



3) 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조성

(1) 기본방향

■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도입기능은 물류 및 유통기능, 국제업무, 관광 및 위락기능, 주거 및 지원기능 등이며 산업별로는 크게 자동차산업 부품산업, 전자정보산업, 바이오 제약산업 등으로 대별 할 수 있음
- 국제물류 및 국제 업무·상업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육상화물운송, 창고업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른 부가적인 수요로서 해상화물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
- 생산기능 측면에서 전자정보산업 등 정밀기기 중심의 산업은 특성상 항공화물운송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
- 또한 바이오산업을 제외하고서는 기계 산업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상화물, 도로관련 시설물 및 해상화물의 수요 또한 높게 나타날 것임
- 자동차·부품산업은 공항 및 항만시설 그리고 항공항 배후단지의 공용물류센터 및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임
- 바이오, 의료기기 등은 산업의 특성상 항공운송 및 냉동냉장창고, 항공운송시설,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시설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임
- 따라서 주요도입기능별 관련물류산업은 육상, 항공, 해상 등의 수요가 고르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이들 관련 물류산업별 필요 물류시설은 환적시설, 터미널, 항공항 관련 운송시설, 냉동냉장창고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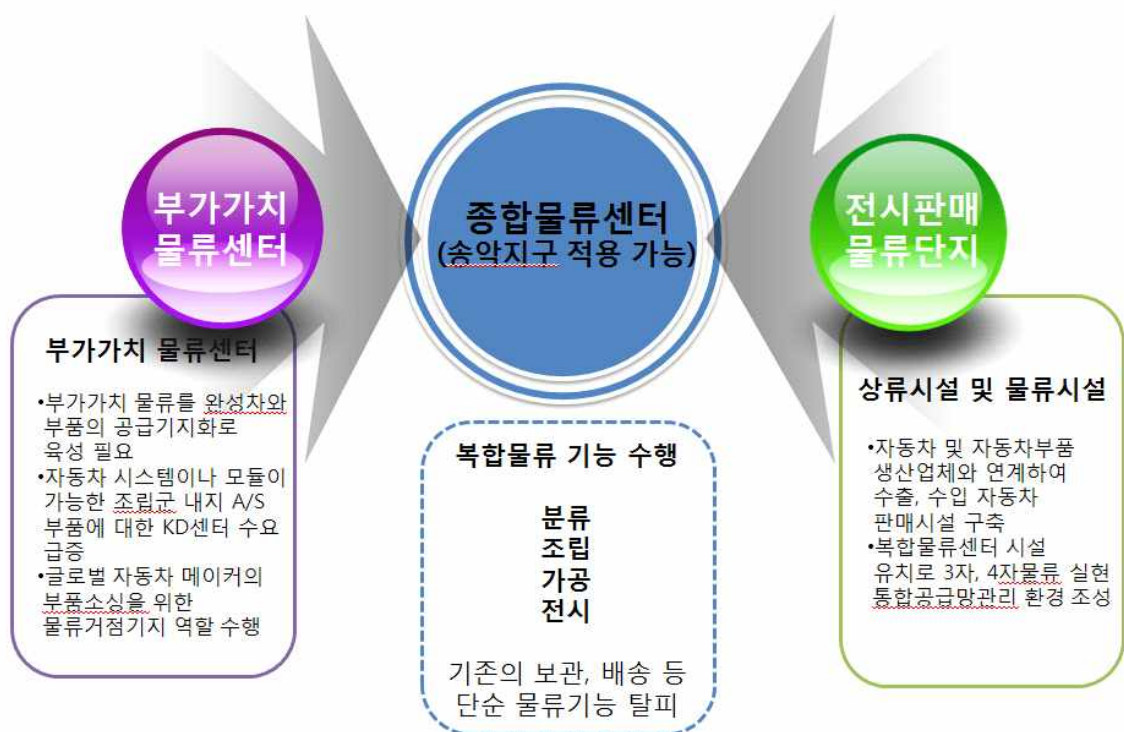
■ 기본방향

- YESFEZ 내 물류센터에서 보관, 분류, 운송, 가공, 조립 등의 부가가치물류활동(VAL)을 수행하고 난 후 수도권이나 중부내륙권 시장을

- 타겟으로 하는 국내 제조업체에게 안정적(적시, 정량)으로 공급
- YESFEZ 내 물류센터에서 제조업체의 모듈화 및 연기전략에 따라 보관, 분류, 운송, 가공, 조립, 라벨링 등의 부가가치물류활동(VAL)을 수행
 - YESFEZ 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제조업체의 물동량을 YESFEZ 내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단순보관이나 분류, 운송과 같은 전통적인 물류활동 전개

(2) 추진계획

① 종합물류센터 건립



■ 추진계획

- 추진방식 : 공공 또는 민간개발(특수목적법인설립)
- 해당면적 : 물류용지 약 20만평(부가가치 부지 10만평 포함)
- 운영방식 : 30년 이내 임대(협의회 20년 연장 가능)
- 운영사모집 : 국내 회사를 운영주체로 하고, 외국업체(중국, 일본 등)를 출자자로 참여
- 기 능 : 기존의 보관, 배송의 단순 물류기능 탈피, 분류·조립·가공·

전시등의 복합물류 기능 수행

○ 기대효과

- 항만 및 물류산업의 집적으로 평택당진항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물동량 창출에 기여
- 종합물류센터 활성화시 연간, 약 300만톤 화물창출 및 2000명의 고용창출 기대
-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서의 성장 기대
- 당진·평택항 및 배후 산업단지가 연계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역할 수행

■ 추진모델 : 송악지구

○ 부가가치 물류센터(항만인근 입지 우선 고려)

【자동차 부품 물류단지】

-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총 개발면적은 5,977,270㎡로 지역별로 보면 포승 1,873,010㎡, 송악 1,537,360㎡, 인주 1,031,590㎡, 지곡 1,696,570㎡ 개발
- 장래 지구별 물동량 예측을 보면 자동차부품분야 총 물동량은 연간 6,215,166톤으로 사업별 분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
-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있어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, 황해경제구역 부가가치 물류를 모듈화 된 자동차부품 조립 등으로 완성차와 부품의 공급기지화로 육성 필요
- 특히, 국내자동차 해외진출 가속화와 성장으로 자동차 시스템이나 모듈이 가능한 조립군 내지 A/S 부품에 대한 KD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
- 대 중국, 동아시아, 유럽, 미주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소싱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역할도 수행

○ 전시·판매시설 + 물류단지시설

【기타, 상류시설 및 물류시설】

- 송악지구는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와 인근 현대자동차, 쌍용자동차, 기아자동차 등과 연계하여, 수출, 수입 자동차 판매시설 구축

- 홈페이지, 철강, 반도체 등 복합물류센터 시설 유치로 3자, 4자물류를 실현 하되, SCM(통합공급망관리) 환경 조성

종합물류센터시설

	추진계획(안)
추진 방식	공공 또는 민간개발 (특수목적법인설립)
면적 운영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류용지 약 20만평 (부가가치 부지 10만평 포함) • 30년 이내 임대(협약 후 20년 연장 가능)
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의 보관, 배송의 단순 물류기능 탈피 • 분류, 조립, 가공, 전시 등의 복합물류 기능
기대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만 및 물류산업의 집적으로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확보, 물동량 창출에 기여 • 종합물류센터 활성화시 연간, 약 300만톤 화물창출 및 2000명의 고용창출 기대 •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향으로서의 성장 기대 • 평택당진항 및 배후 산업단지가 연계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역할

추진모델(안) - 송악

부가가치 물류센터

【자동차 부품 물류단지】

- 부가가치 물류를 모듈화 된 자동차 부품 조립 등으로 완성차와 부품의 공급기지로 육성
- 해외진출 가속화 및 성장으로 자동차 시스템이나 모듈이 가능한 조립군 내지 A/S 부품에 대한 KD센터의 수요가 급증
-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소싱을 위한 물류

전시판매+물류단지

【기타, 상류시설 및 물류시설】

-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와 인근 현대, 쌍용, 기아 등과 연계하여 수출, 수입 자동차 판매시설 구축
- 복합물류센터 시설 유치로 3자, 4자 물류를 실현, SCM(통합공급망관리) 환경 조성

② 전시·판매시설 + 물류단지 시설 건립

■ 추진계획

- 추진방식 : 민간개발(특수목적법인설립)
- 해당면적 : 물류용지 약 5만평(인주, 포승, 향남지구 적용)
- 운영방식 : 분양 및 임대
- 운영사모집 : 국내 회사를 운영주체로 하고, 외국업체(중국, 일본 등)를 출자자로 참여
- 기 능 : 지구내, 주변 산업단지 생산물의 공동 보관·배송 기능과 함께 분류·조립·가공·전시기능 담당
- 기대효과
 - 항만 및 물류산업의 집적으로 평택당진항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물동량 창출
 - 송악 종합물류센터 활성화시 연간 약 600만톤 화물창출 및 약 6000명 고용창출
 - 관련단지 생산물 및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향으로 성장
 - 당진·평택항 및 배후 산업단지가 연계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역할 수행

■ 추진모델 : 인주지구

인주지구 추진모델(안) :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단지화 실현



○ 전시·판매시설 + 물류단지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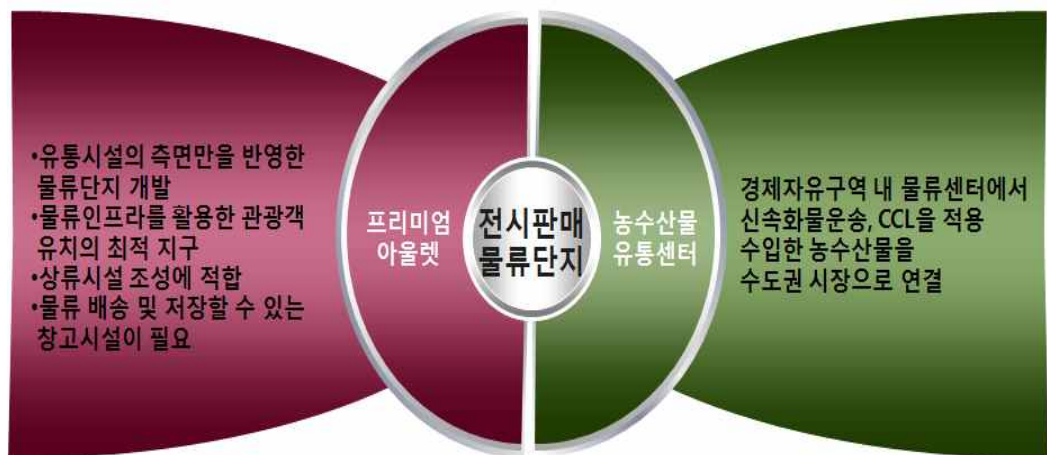
【전자정보 물류단지】

- 인주지구는 서해안권 첨단 전자정보산업의 메카 기능을 수행으로 디스플레이, 반도체 등 고도지식기반산업 집적 단지화 실현을 목표하고 있음
- 향후, 전자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은 3,914,606 m²로 자동차 부품산업 다음의 면적을 개발할 계획임
- 장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전자정보 관련 총 물동량은 연간 4,070,406톤임
-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업체나 인근의 삼성전자, LG디스플레이 등과 공조하여 전자제품 판매시설인 아울렛 및 물류창고를 갖춘 산업전시장 성격의 물류단지를 개발

- 전자제품 및 정보통신 기기의 경우에는 품질, 가격, 디자인, 기능측면에서 한국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,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센터로서의 기능 적극 검토
- 대한민국 전자제품 홍보관 또는 역사관을 건립하여,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의 기능 제고

■ 추진모델 : 포승지구

포승지구 추진모델(안)



○ 전시·판매시설 + 물류단지시설

【프리미엄 아울렛】

- 당진·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포승지구의 물류시설용지, 유발인구 및 수용인구를 반영이 필요
- 포승지구에는 부가가치 물류시설용지의 계획이 없어, 유통시설의 측면만을 반영하여 물류단지를 개발하고자 함
- 또한 포승지구는 상업업무시설용지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계획되어 있어,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수도권 관광객 및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지구로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쇼핑할 수 있는 상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- 상류시설과 더불어 의류와 관계된 물류를 배송,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필요함

【농수산물 유통센터】

-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의 웨이하이, 칭다오, 옌타이, 마오밍, 서우광 등지에서 채소나 과일 및 어류 등을 수입한 후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센터에서 선별, 세척, 소독, 보존처리, 단순가공, 포장, TQM 및 수산물, 화훼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화물운송, 신선도 유지를 위한 COLD CHAIN LOGISTICS를 적용하여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수도권 시장으로 연결

전시판매+물류단지		추진모델(안)	
	추진계획(안)	인주지구	
추진 방식	민간개발(특수목적법인설립)	【전자정보 물류단지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업체와 공조하여 전자제품 판매시설인 아울렛 및 물류창고를 갖춘 산업전시장 성격의 물류단지 개발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센터로서의 기능 검토 전자제품 홍보관 또는 역사관 건립,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의 기능 제고 	
면적 및 운영방식	물류용지 약 5만평 (인주, 포승, 항남 지구 적용)	포승지구	
기능	지구내, 주변 산업단지 생산물의 공동 부관 배송, 분류, 가공, 전시 등		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만 및 물류산업 집적으로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동량 창출 활성화시 연간 약 600만톤 화물창출 및 약 6000명 고용창출 기대 관련단지 생산물 및 주변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성장 평택당진항 및 배후 산업단지가 연계된 글로벌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역할 수행 	프리미엄 아울렛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통시설 측면만을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수도권 및 중국관광객 유치 최적 상류시설 조성 및 관련 물류 배송, 저장 기능의 창고시설 【농수산물 유통센터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수도권 시장으로 연결 	

4) 효율적 물류지원체계 구축

(1) 기본방향

■ 물류 유관기관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

- YES FEZ 물류 활성화 및 관련 물동량 증대를 위한 제반 물류정책을 발굴하고 향후, 입주기업들의 물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당진·평택항 관련 유관기관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사전 구축

■ 물류활동 지원 및 물류기업 유치 강화

- 입주기업들의 니즈(needs)에 부합하는 물류관련 지원시설, 법령 및 절차, 인센티브 등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활동 강화
- 적극적인 물류 관련 마케팅을 통해 당진·평택항의 인지도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, 이를 토대로 물류업체 유치활동 전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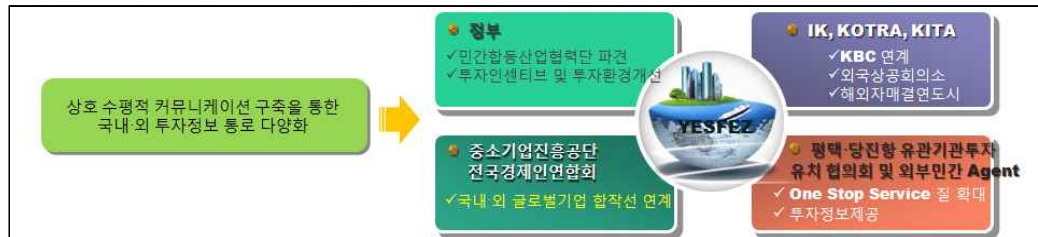
(2) 추진계획

① YES FEZ 물류 파트너십 구축

■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중앙정부, KOTRA, FORCA(한국외국기업협회), 경기도와 충청남도 투자유치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(NGO), 지역언론 및 민간 부문과의 수평적인 전략적 협력관계의 형성도 중요함
- 이는 중앙-지방정부와의 계층적, 공식적 관계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구조직의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공감대가 바탕이 된 유기적인 네트워크체제 구축을 의미함
 -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투자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기관의 합의 형성과 문제인식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, 이러한 유치기관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외국인투자유치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함
-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“투자유치협

의회”를 중심으로 유관부서, 해외통상사무소, 해외자매결연도시, 중앙부서 특별행정기관(ex, 지방중소기업청, 지방국토관리청, 지방노동청, 지방환경청, 지방해운항만청 등), 민간단체(ex, 산업별 협회, 상공회의소, 조합 등)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정보가 접수되는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



■ 추진계획

○ 운영 :

- 업계의 의견수렴과 안전심의 중심으로 합동회의를 운영하고, YES FEZ 물류사업 발굴과 보급

○ 활동 :

- YES FEZ 물류사업발굴을 위한 화주와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추진
-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조사·연구
- 선정된 사업홍보를 위한 보급·확산
- 사업선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

○ 회의구성 :

- 화주 및 물류기업, 선사를 중심으로 항만공사(PA), YES FEZ와 학계, 연구관련 종사자로 구성

○ 회의개최 주기 및 방식

- 정기회의 : 분기별1회(필요시 수시 개최)
- 분과회의 : 분기별1회(필요시 수시 개최)
- 개최방식 : 간담회, 강연회, 기타 행사 등

② 당진·평택항 투자유치 협의회 구성·운영

■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공식적·비공식적 투자유치정책협의회 운용을 통한 정책조화가 필요하며 특히, 항만배후단지와 YESFEZ 및 타 경쟁지역과도 투자유치정책 협의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
- 또한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, One Stop 통관시스템 구축이나 24 Time Delivery System, 국내·외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투자유치, 평택·당진항 물동량 확대
 - 이를 위해 세관절차 간소화, port sales 강화, 내륙 물류비 및 해상운임, 운송시간 단축, 신규개설가능 항로정보 발굴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해서 당진·평택항과 관련이 있는 선사와 화주, 항만공사(PA-port authority), 세관, 검역 및 출입국관리당국, YESFEZ가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



■ 추진계획

- 대민 항만물류 서비스 제고 및 전자 마케팅을 위한 당진·평택항 홈페이지 개설·운영
 - 항로정박지, 부두시설, 항만배후단지, 항만지원시설,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통합 홈페이지 개설
 - 홈페이지 언어를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등으로 개설하여 전자 마케팅도 함께 실현
- 당진·평택항 투자유치를 위한 통합 브로셔 제작

- 연찬회, 포럼, 투자유치활동 공동 수행
 - 당진·평택항 관련 발전방안 모색
 - 참여기관(단체)에서 제안한 의제 등 공동 숙의
 -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가능사업 발굴
 - YESFEZ 발전 및 투자유치 방안 협의(비즈니스 모델 제안 등)
- 정보 네트워킹 기능강화
 - 참여기관(단체)간 정보공유로 상호 이해의 폭 확대
 -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신속·정확한 정보 공유
 - 항만물류 관련 국내 및 해외 주요 물류업체의 투자동향 파악

<표 5> YES FEZ 물류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

추진전략	추진방향 및 계획	세부사업 및 시
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	교통시설 설치	당진~울진간 고속
		동서산업선
		장항선 복선전철
		평택~포승간 철
		신평면~내항간 연육
	평택·당진항 시설개발	컨테이너 부두
		자동차 부두
		철재(원료)부두
		일반(기타)
	항만배후단지 조성	복합물류시설
		물류서비스 지원
		공공시설
	도로망 확충	국도38호선 개설(가곡
		국도32호선 및 34호
		지곡지구~국도32호
		포승지구~국도38호선 연
		국도39호선 확
		국도38호선 연장
		국도38호선 및 34호
		국도32호선 및 34호
		지곡지구~송악지구 연
		국지도38호선 가로망
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	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	지방도315호선 확
		입주기업 물류지원센 공동물류 지원시스

(계 속)

추진전략	추진방향 및 계획	세부사업 및 시
부가가치 물류인프라 조성	종합물류센터 조성(송악)	부가가치 물류센터(자동차부
		전시판매시설 + 물류
		통합공급망관리 환경
	종합물류센터 조성(인주)	전시판매시설 + 물류단지(전자
		전자제품 홍보관(역
	종합물류센터 조성(포승)	전시판매시설 + 물류단지(프리
효율적 물류지원체계 구축	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	농수산물 유통센
	물류기업 유치강화	YES FEZ 물류 파트너 투자유치 협의회 구성